



가족사랑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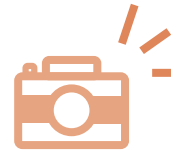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평구 거주 5세~초등학생자녀를 둔 10가정을 대상으로 2017.11.18.(토)~19(일) 너리굴문화마을에서 1박2일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에 어색함과 설렘으로 너리굴문화마을에 도착하여 자연속에서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끼리 유대감을 형성하고 타가족과도 친밀해졌습니다.

1박2일 가족캠프 중 참여한 가족들에게 인기 있었던 'BBQ 요리왕'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녁 먹기 전에 다양한 미션을 통해 얻은 식자재 쿠폰을 이용하여 2가정이 팀을 이뤄 창의적인 요리를 만들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BBQ 요리왕'은 자녀를 중심으로 부모가 보조하면서 요리를 만드는 시간이어서 "어떤 맛이 나올까?"라는 걱정과 기대가 되었습니다. 1~5조는 팀원끼리 어떤 요리를 할지 구상하고, 자녀들이 식자재를 가지고 와서 어떤 조는 오뎅우동, 부대샌드위치, 라볶이 등 다들 순조롭게 요리를 만드는데, 한조의 가정이 무슬림가족이라서 돼지고기를 못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요리를 구상할 때 의견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식자재 중 햄 종류가 다양했고, 다들 햄을 이용하여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어떤 요리를 만



들어줄지 걱정했는데 다른 문화를 가진 두 가정이 협동하여 너구리면을 삶아 떡볶이와 야채를 섞어 라볶이를 만들어 그 위에 옥수수콘을 뿌려 식감과 맛을 살리고 센스 있는 작명(너구리가 떡볶이를 먹고 떡실신)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조 가족들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요리 할 기회가 많지 않는데 야외에 나와서 가족과 함께 특별한 요리를 만들면서 자녀와 소통하고 우리 아이가 성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협동하여 만든 요리에 의미를 부여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맛도 두배가 되는 시간 이였습니다.

짧은 1박2일 캠프가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다수의 가족들이 너무 즐거웠고, 오랜만에 집을 벗어나 외부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가족사랑캠프를 통해 가족 결속력이 증진되고 친밀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